

시원한 계곡에 물놀이까지... 여름 휴가지로 변신



시원한 계곡에, 도심 속 물놀이까지. 익산이 여름 휴가지로 변신했다.

익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선물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용포 송천계곡이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영등시민공원과 유천생태습지 등 도심 곳곳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터도 가동을 시작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용포면에 위치한 송천계곡

▲송천계곡, '안전+편의' 강화

송천계곡은 지난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입, 호안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도비 2억원을 확보해 올해 3월 실시계획을 마치고 4월부터 복구 공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복구 공사는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계곡 상류에는 사방댐을 보강하고 돌수로 설치해 산사태 위험을 줄였다. 본류에서는 준설과 하류 호안 보강을 통해 토사 유입을 차단했다. 지류에는 개비온(돌방배) 담장을 설치해 유실을 막는 등 다층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가뭄 시에도 계곡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류에 물을 가두는 보(댐)를 추가 설치해 담수 능력을 강화했다. 담수된 물은 펌프를 통해 상류로 순환시켜 계곡 물 흐름을 유지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했다.

작년 7월 호우 피해 입어... 재해복구 완료
항구적 안전대책·편의시설 확충... 휴양지로
도심 속 피서 공간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안전 최우선”... 정현을 시장, 현장점검 나서

지난달 26일 송천계곡과 도심 물놀이 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현을 익산시장.

▲편의시설 확충... 가족 단위 휴양지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대폭 강화됐다. 그늘막을 곳곳에 설치해 시원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고, 계곡 주변에는 발 씻는 곳과 간단한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심구간을 정비하고 안내표지

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다했다. 익산시는 송천계곡을 단순한 피서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변에 위치한 용포문화체육센터, 용포포개나루, 금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적



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심 속 물놀이터, 아이들 웃음소리로

송천계곡과 더불어 도심에서도 피서 공간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등시민공원과 유천생태습지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터

는 지난주부터 가동을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가족이 찾고 있다.

이곳에는 미끄럼틀과 유아용과 아동용으로 분리한 풀장, 물 분수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불시 안전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장도 지난달 26일 송천계곡과 도심 물놀이 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정 시장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송천계곡을 비롯한 익산의 물놀이 명소가 안전과 편의성 모두를 갖춘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순창군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강천힐링스파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HEAL FROM WATER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